

■ 광고계 동향

1. 광고주 90% 방송광고사전심의 폐지 찬성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1월 6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광고인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을 비롯하여 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김명하 한국광고업협회 회장, 배기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윤세영 SBS 회장, 배종렬 제일기획 사장 등 광고인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광고인 신년 교례회에는 민병준 광고주협회 회장을 비롯한 광고인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전응덕 광고단체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광고주대회를 전 광고인의 축제로 만들어 침체된 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하였으며,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간광고의 시행과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삼성 슬로건 및 엠블럼 제정

삼성은 ‘새 천년, 새 삼성’이라는 슬로건과 밀레니엄 엠블럼을 제정하고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광고물에 이 슬로건과 엠블럼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슬로건과 엠블럼 제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 인간중심의 새 천년을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 OB라거 ‘김승우 - 허준호’ 콤비 새광고 선포



OB라거의 모델이 김승우와 허준호로 새롭게 선보였다. 무명가수인 김승우와 허준호는 TV뮤직쇼에서 흘러나오는 인기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신세에 처량해 한다.



그러나 상쾌한 OB라거를 마신 후 열광적인 팬들로 꽂찬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며 다시 새로운 꿈에 도전한다는 내용이다.

OB라거 앞에 좌절 없다는 새로운 컨셉으로 선보이는 이번 광고는 랄랄라 시리즈의 후속 광고로 관심을 모우고 있다.

4. LG화학 탈북 여배우 광고출연 섭외

LG화학은 탈북 여배우 김혜영 씨를 광고모델로 섭외중이다.

샴푸와 치약 등의 상품광고로 계약은 관계기관의 승인이 나는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은 모우고 있다.

5. 하이트맥주, 동계아시아대회 공식지정맥주 선정

하이트맥주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공식지정맥주로 지정됐다. 하이트맥주는 이를 위해 대회 8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대회 휘장 및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이용한 스포츠 판촉전을 전개하며, 대회를 전후해 40여일간 강원도를 상징하는 아기 반달곰을 디자인한 곰돌이 이벤트 캔을 제작, 판매할 계획이다.

6. 대우 코래드로 광고대행 일원화

대우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열사의 광고물량을 코래드가 일괄 광고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기업 이미지의 통일과 광고의 일관성유지가 목적. 대우의 이번 결정으로 광고계의 순위변동 등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7.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광고모델로 등장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뉴스위크 등 해외 우수 언론에 광고모델로 등장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산간척지 물막이 공사의 일화를 소개 '반세기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내'라는 제목의 이번 광고는 지난해 소몰이 방북 등으로 해외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 회사이미지광고로 제작되었다.

현대는 광고효과가 클 경우 정주영 명예회장의 광고를 시리즈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 삼암기획 나래이동통신 신규 광고주로 영입

삼암기획은 나래이동통신의 015나래 문자빼빼와 업종별 전화번호부, 나래 옐로우페이지 등의 광고품목 광고대행을 체결했다.

9. 방송위원회 방송편성·정책 보고서 발간

방송위원회는 『98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지역민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권역의 확대, 전파료 인상, 광고대행 수수료의 차별화, 지역민방의 네트워크 선택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기와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4구역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민방을 광역화 하고 광고요금도 로컬 프로그램광고

와 토막광고의 요금 격차를 줄여야 하며, 전파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지상파방송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9%의 광고 수수료 역시 광고판매율에 따라 차별화 하거나 중앙방송사와 지역민방간에 차등화하고 지역민방들에게 복수의 네트워크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KBS의 수신료 인상과 공영성 강화, MBC의 민영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방송광고공사, 매체가치따라 탄력요금제 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오는 4월부터 광고판매조건과 방법, 방송광고 판매 시장동향, 개별 프로그램의 매체가치 등에 따라 방송광고요금을 차등화시키는 ‘탄력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판매를 비롯해 광고주가 희망하는 프로와 시간대에 광고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판매와 완판을 채우지 못한 광고시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ROS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공익성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면 광고주가 원하는 날 같은 시간대에 광고를 한 번 더 내는 보너스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11.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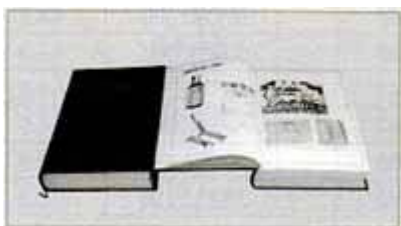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동본부는 전화나 팩스로 매주 피해사례를 접수하며,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 언론중재절차와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알려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도 대리할 계획이다.(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전화:732-7319, 팩스: 732-7076)

12. 전경련, 신년 경제전망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2월 3일과 4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신년 경제전망과 기업희생 전략’을 주제로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진순 KDI 원장,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조동성 서울대 교수, 전성철 Kim&Chang 변호사, 이헌재 금융감독위 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조지 오 모이제 앤더슨 컨설팅 박사 등이 연사로 참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동화약품 백년사 발간 >



동화약품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구랍 28일 ‘동화약품 백년사’를 발간했다.

발간된 ‘동화약품 백년사’는 크게 화보와 본문5편 및 부록으로 구성하였고 제1편은 신약의 여명, 2편은 동화가 걸어

온 길(연혁), 3편은 오늘의 동화(현황), 4편은 가족회사, 5편은 21세기의 동화(미래)로 구성하였다.